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빅폴에서 만난 선교사님들과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사장 김홍식 장로
(내과 의사, 수필가)

10년 만에 빅토리아 폭포를 다시 찾았다. 나이아가라, 이과수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 빅토리아 폭포는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 잠베지 강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인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짐바브웨에서 붙인 이름이지만 잠비아 쪽에서는 토착 이름인 '천둥소리 내는 연기'라는 뜻의 모시오아툰야 폭포라고 부른다. 빅토리아 폭포는 높이 108 미터의 규모인데 가뭄 때문에 강물이 많을 때의 장관은 보지 못했다.

스코틀랜드 가정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로 30년간 남부·중부·동부 아프리카를 탐험했다. 1855년 11월 16일 잠베지 강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고, 노예무역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서양 연안 루트를 찾아 나섰다. 그 이전에는 어떤 유럽인도 감행하지 않았던 모험이었다.

그는 탐험가이자 의사, 선교사이자 노예폐지론자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미흡한 장비만으로 아프리카를 깊숙이 여행하고 탐험했다. 유럽인에 의한 최초의 아프리카 횡단이다. 1871년 3월 그는 병을 앓으면서도 배를 타고 콩고 강을 탐험했다. 중부 아프리카를 둘러보고 나일 강의 근원을 찾겠다는 여정이었다. 그를 버리고 떠난 흑인 하인들은 잔지바르로 돌아가 리빙스턴이 살해됐다고 거짓 보고했다. 1871년 11월 10일 뉴욕 헤럴드 특파원 M 헨리(Henry Morton Stanley)가 현재 탄자니아 땅인 탕가니카 호수 인근에서 병중에 있는 그를 찾아냈다.

“닥터 리빙스턴, 맞으시죠?” 헨리가 가져온 약으로 그는 간신히 몸을 회복한 듯 보였지만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헨리의 간청은 거절했다. 그는 나일 강의 원류를 찾고 노예무역을 근절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탐험을 이어갔고 그의 병은 깊어졌다. 1873년 5월 지금의 잠비아 북부인 치탐보(Chitambo)에서 흑인 하인들은 침대 옆에서 기도하듯 무릎을 꿇은 채 숨진 그를 발견했다.

잠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한 그의 애정은 분명하다. 불행히도 그가 개척한 교역 루트를 이용한 것은 노예상인들이었다. 중앙아프리카 루트가 개척됨으로서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노예무역은 오히려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잔지바르 노예시장은 중앙아프리카 최대라고 불릴 만큼 성장해버렸다. 장작 리빙스턴은 생애 막바지에 도달하기까지 노예무역 폐지를 목표로 삼아 활동했다. 그는 저서나 편지를 통하여 당시 포르투갈 영토와 잔지바르에서 이루어지는 노예시장을 철폐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의 청원운동은 1871년 영국 하원에 요청서가 제출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고 후에 잔지바르의 노예시장은 폐쇄되었다.

어려운 환경, 인종 차별, 교육과 보건의 부재로 힘들고 불행했던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사랑과 열정은 어디에서 끊임없이 나왔을까? 필자가 이번에 빅폴에서 만난 아프리카 20개국에서 오신 36가정의 선교사님들 마음에는 잃어버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보다 못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사님들 모두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에 비하면 그분들의 희생은 오히려 부족하다고들 하셨다. *

아프리카미래재단 17주년 기념 선교대회 개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박4일 동안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미래재단 17주년 기념 선교대회는 박상은 대표의 감작스러운 소천 후 처음으로 갖는 대규모 대회였다. 이번 선교대회는 63명의 선교사와 한국본부, 미국본부, 미국에서 참여하는 다섯 팀의 비전트립팀이 함께하여 모두 116명이 참여하였다.

29일 개회예배부터 주일예배까지 모두 네 차례의 예배에서는 나삼진 목사(미국본부 사무총장·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 박석현 목사(산호세지부 이사장·산호세한인장로교회), 김용훈 목사(동부지부 이사장, 열린문장로교회), 조영천 목사(아틀란타지부·아틀란타새교회)가 말씀을 전했고, 여러 특강이 있었다. 선교사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역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였다.

아프리카 23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사랑의 교제, 빅토리아폭포, 리빙스턴 박물관 투어, 잠베지강 선셋

투어, 초베 국립공원 사파리 관광 등의 문화탐방 시간을 가져 창조세계를 함께 즐기게 되었다. 참가한 선교사들과 비전트립 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창조세계와의 만남과 선교사들과의 만남으로 깊은 교제의 시간과 기회가 되었다고 반응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가운데서도 처음 빅토리아폭포를 방문한 이들도 많았는데, 프로그램이 늦은 시간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

선교대회 후에는 선교사들은 사역지로 돌아가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와 연합한 오렌지팀은 남아공국 케이프타운과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 방문, 산호세팀은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역지 탐방, DR콩고 팀은 부냐끼리 병원과 간호대, 그리고 USA 리더십팀은 말라위 목회자 세미나를 봉사하였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뉴스레터 가을호에서는 각 팀의 선교 비전트립 보고와 함께 사진으로 각 팀의 선교사역과 비전 트립을 만나본다.

AFF USA 리더십팀 : 말라위 목회자 세미나

선교대회를 마치고 미국본부와 한국본부 리더십이 함께한 말라위 팀은 말라위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현광섭 선교사의 주된 사역지인 블란타이어는 말라위의 오래 전 수도였지만 수도 이전으로 지금은 제2도시가 되었다. 빅폴공항에서 블란타이어로 바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으로 이동,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블란타이어로 들어가야 했다.

말라위 목회자를 위한 인텐시브 세미나는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되었는데, 목회자들 가운데 영어에 능숙한 60명의 목회자들이 참가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널리 알려진 말라위는 나라의 교통이 불편하여 10시간에 걸쳐 이동했던 목회자도 있었다. 대도시도 바로 가는 버스들이 없고, 또 있어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작은 버스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지역간 이동을 해야 했던 것이었다.

목회자 세미나는 블렌타이어의 진리의빛신학대학에서 개최되었는데, 막 건축을 마친 새 건물이 처음으로 목회자 세미나로 사용되었다. 신학교 건물은 중고등학교 건물과 분리되어 한 캠퍼스의 한쪽에 강당, 강의실, 행정실, 기숙사 등으로 작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책상이 준비된 신학교 강당이 있었고, 기숙사는 2층 나무 침대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70년대의 신학교 기숙사를 떠올리게 했다. 기숙사는 수용인원이 30명 밖에 되지 않아 참가자 가운데 절반은 교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기 위해 깔개를 깔고 잠을 자야 했다. 이러한 환경은 미국 학생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이지만, 한국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양회를 개최했던 것을 기억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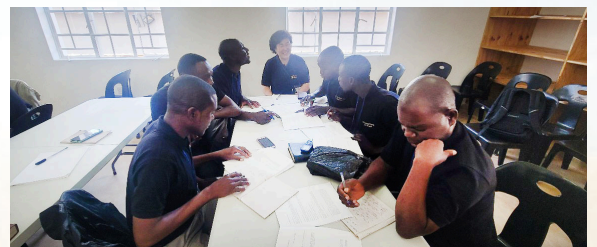
말라위 목회자 세미나는 헌신자들이 제공한 후원금으로 품질좋은

티셔츠를 준비해 함께 입었고, 1박2일 동안 1시간 30분 강의가 모두 여섯 차례 제공되었다. 김용훈 목사가 '목회자가 누구인가'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 세우기'를, 나삼진 목사가 '살림을 위한 삶과 목회'와 '기독교교육과 목회의 지도 그리기' 조영천 목사가 '칼빈의 생애와 사역에서 배우는 목회'와 '청교도처럼 설교하기'를 강의했다.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지만,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 목회, 설교, 교육, 삶을 주제로 하여 골고루 나누어 강의를 한 셈이 되었다.

이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교회 여전도회가 음식을 준비하는 등 함께 정성을 드려 전국에서 몰려온 목회자들을 맞이해 주었다. 이 간단한 보고서를 쓰는 동안 '내년에도 꼭 오라'는 부탁이 귀를 울리고 있다.

말라위 목회자 세미나 팀은 10명 정도였지만, 우리를 맞이했던 선교사는 이런 대규모 방문팀은 거의 처음이라 했다. 말라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고, 주변에 둘러볼 수 있는 곳도 없어서 비전트립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이 아니며 방문자들이 거의 없다고 했다. 선교사 부부와 대화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겪는 외로움이 큰 문제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난해 방문했을 때 현 선교사의 부인 이연희 선교사는 삶과 사역을 나누던 중에 자녀의 결혼 문제로 걱정이 되어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짝을 만나 곧 결혼을 한다고 하니 선교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말라위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들에게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강의가 제공되었다. 목회자 훈련의 기회가 적은 말라위에서 이렇게 잘 준비된 말라위 목회자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글: 나삼진 목사 / 미국본부 사무총장)



오렌지팀 - 남아공, 에티오피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아프리카 비전트립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까지 모두 합해 LAX를 출발하여 28시간 만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선교대회인 빅폴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걱정과는 달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물과 의약품 등 많은 짐이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통과되어 하나님이 우리팀과 함께 하심을 찬양했습니다.

4박5일 동안 강행군으로 진행된 선교대회 일정에 우리팀은 피곤한 모습은 없고, 예배 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과 감격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 밖에 자지 못했지만 모두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중간중간 빅토리아 폭포, 초매 사파리 등 힐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위대함을 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사역 내용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이 모든 일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위험속에서도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수고에 저희 팀 모두는 한없이 작아졌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남아공에서 흑인 빈민지역에서 교회개척 사역과 가정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왕준식, 박영선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여 교회의 물품들을 훑쳐가는 악순환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어린이 교회사역과 무료 급식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규성, 권정화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여 어린 학생들과 예배하며 그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로 기도한 일, 그리고 명성병원의 의과대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아프리카미래재단의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언젠가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리라는 아프리카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에서의 마지막 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김정환, 김재수, 왕준식, 이규성 등 네 분의 선교사 부부를 초청하여 양고기 바베큐 파티를 갖고, 기도모임과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팀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짐을 알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프리카 땅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더욱이 저희 부부는 결혼 40주년 기념 비전트립을 다녀온 것이라 의미와 감동이 큰 시간이었습니다.

(글: 이홍철 집사/오렌지키운티한인교회)

아틀란타팀 - DR 콩고

저는 이번 17주년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마치고 DR Congo에 가서 아틀란타지부가 후원하여 건립한 부냐키리 예수병원과 제반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르완다 키갈리공항에 도착하여 콩고 국경을 육로로 넘고, 산악에서나 운용이 가능한 Land Cruiser를 타고 총 12-13시간 정도를 밀림으로 들어가니 드디어 부냐키리라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말로는 최관신 선교사님이 밀림 가장 깊숙히 들어온 '무중구'(외국인을 부르는 말)라고 합니다.

문명의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전기와 취사를 위한 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터넷 및 통신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적도 지역이다 보니 거의 정확히 6시에 해가 지고 깜깜해지고 6시면 해가 뜨는 곳입니다. 전기가 없다 보니 6시 이후 어두워지면 자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보니 방문 기간 동안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일하는 의사는 현재는 2명 그외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직원이 16-18명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많은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모습에 감사했고, 병원 옆에 소아 및 남녀 입원 병동이 있는데 열악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첫날 제왕절개 수술하는 것을 참관 했고, 보는 내내 감탄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수술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응급시에 응급 수술(제왕절개, 자궁적출술, 맹장 수술까지)을 해내는 데 대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와 반면 수술실 기본 장비(Electrocoagulation hemostasis, oxygen concentrator 등)도 없고 나무로 만든 Fluid holder와 Instrument table 등을 보며 안타까움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해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병원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인데, 이렇게까지 대단한 일을 해 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밀림 속에 있는 고립된 마을 부냐키리에도 여전히 많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생명들이 있으며, 이곳에 병원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구해지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문명을 접촉하지 못한 피그미 종족이 밀림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동물가죽으로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사는 미전도 종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간호학교가 시작되었고 나아가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그미족을 위해 펼쳐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글: 이경호 아틀란타 지부장)



산호세팀 - 잠비아, 짐바브웨



산호세 팀 아프리카 선교일정

1. 8월 27일~8월 29일 잠비아 김홍구, 김명애 선교사 선교지 방문
음악, 미술 교육 및 인형극 발표 외 세포 합창단과 함께 찬양 하는 시간
2. 8월 29일~9월 1일 아미재 선교사 대회 참석 찬양, 예배, 빅북, 사파리 관광, 선교사님들과의 시간
3. 9월 1일~9월 3일 하라레 강동원, 전진경 선교사 선교지 방문 소아재
활증진사업 현장 방문 및 레인함 퓨처센터 방문 (미술교육 참여)
4. 9월 3일~9월 5일 잠비아 허일봉, 전미령 선교사 선교지 방문
제라보건 대학 및 치소모 아동클리닉 봉사 활동, 거리의 아이들 센터
방문 및 봉사활동

산호세 팀 소감

선교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 한다는 귀한 생각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특별히 아이들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아프리
카 선교에 대하여 무엇을 지원하며, 무엇을 더 기도해야 할지 고민하
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헌신이 반드시 어딘가에 쓰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뒤편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각 개인이지만
선교지에서 더 외로움에 몸부림 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그리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역자로
서의 마음을 가져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 가정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교지에 다녀와
서는 오히려 그 어려움이 회복되며, 그것이 짐이 아니라 원동력이 되
는 귀한 경험을 하게되었고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겠다는 마음
을 가졌습니다. 귀한 일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글: 최정욱 장로/산호세팀 팀장)



우간다 선교 소식

김세현 • 노미정 선교사

1. 벌써 16년간 아프리카에 살면서 이런 저런 선교후원비를 받곤 합니다. 때로는 우물비, 혹은 심방용 자전거 구입, 돈보기, 성경 구입, 장학금, 교회건축비 등 참으로 다양한 헌금을 받습니다. 다들 사연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손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보며 입술에서 찬양이 그냥 흘러 넘칩니다.

2. 하단교회 담임이신 김영환 목사님께서 어제 문의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교회를 꼭 지어야 할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들이 돈이 많은 분은 아닙니다. 남편 홍병팔 집사님은 90세이며 치매입니다. 부인 신길자 집사님은 80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사시는 분이라 간증이 많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교회당 세 개라도 짓고 가야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것이라며 헌금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 수 년 전에 태소부족에 이미 하단교회는 교회 3곳과 우물 2곳을 거의 두달 사이에 짓도록 이미 우간다에 헌금한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쁜 목회일정으로 어느 곳 하나라도 헌당식에 참석하지 못해 너무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이어서 3곳 교회를 건축함으로 반드시 내년은 헌당식에 오기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4. 이번에 건축할 교회 역시 오랫동안 건축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중 아부켓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 회심의 기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초가 교회가 협소하여 밖에서 서서 예배드리곤 합니다. 또 다른 아부쿨 교회는 수년 전 미국 산호세 장로교회 (담임:박석현 목사님)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방문하고 마을 센터에서 전도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점쟁이 한 명이 회심하여 지금까지 예수를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 준비된 곳이기에 이번 하단교회의 건축 지원은 참으로 가장 좋은 때에 꼭 필요한 장소에 건축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산 하단교회에서 교회 3곳을 건축하기로 한 현재 교회 모습

5. 또한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3곳을 짓기에 그 금액이 약간 부족한 형편임을 알고 그 모든 경비를 추가로 다 해준다고 예정된 크기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도 받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잘 이해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김 선교사는 또 힘을 내고 건축의 현장으로 달려가 봅니다. 그저 감사 찬양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 하루를 주를 위해 살겠네

주께서 내 길 예비 하시네.. 아멘, 아멘!

2024. 10. 20 동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

김세현 노미정(준형) 드립니다



AFRICA FUTURE FOUNDATION NEWS

중아선, 아프리카 전략회의 열고, 선교정책 마련 AFF USA 출판비 지원하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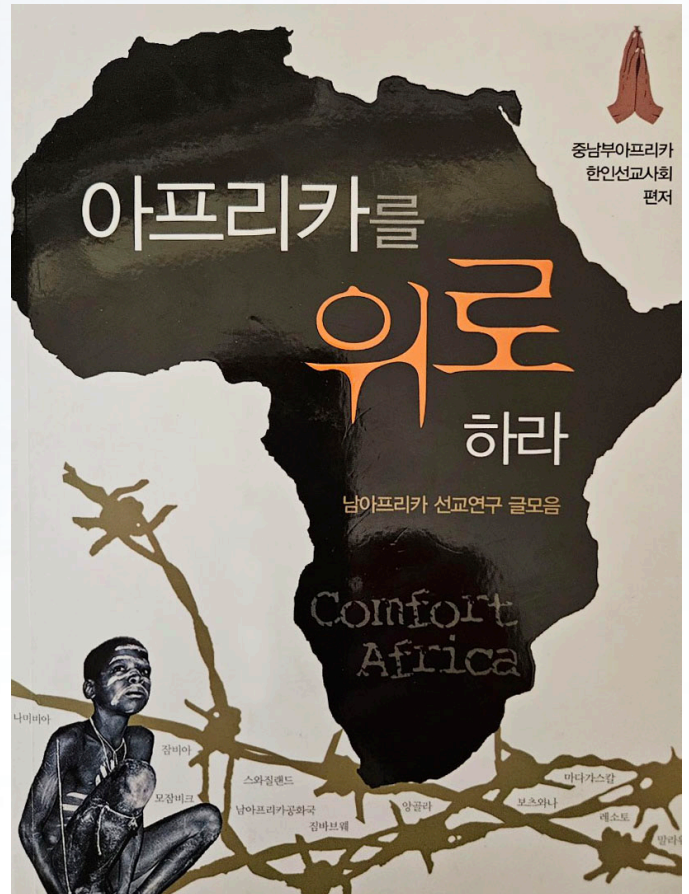
중남부아프리카한인선교사회(이하 중아선, 회장 강병훈 선교사)에서 지난 9월 10일부터 나흘간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선교전략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선교사들이 연구한 새로운 선교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아선이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음을 우리 재단이 알고, AFF USA 이사회는 9월 1일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회장 강병훈 선교사를 만나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그 출판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0년 전략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엮어 《아프리카를 위로하라》를 출간하였는데, 중아선은 15년만에 다시 선교전략회의를 열고 선교 연구논문과 선교사역 사례 발표를 하고 이를 종합하여 《아프리카여 일어나라》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중아선에서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선교 연구 논문과 함께 차세대 문제, 선교 전략, 신학교육, 캠퍼스 사역, 유치원 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모아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런 연구들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NGO기구에서 일하는 사역자들과나 선교사 후보생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전략회의에서 발표되고, 이를 수정, 보완한 끝에 출판에 들어가 12월에 개최되는 중아선선교사대회 때 출간되며, PDF판도 함께 보급하여 선교사들과 기관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CTS합창단 후원의 밤 연주회 후 김명숙, 송영애 권사 특별헌금 보내와

지난 6월 30일 아프리카미래재단 USA가 아프리카를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한 바 있었는데, 이때 특별출연한 CTS합창단(단장: 손영금, 김행길, 지휘: 김명옥)의 단원들이 당일 헌금 외에 다시 특별헌금을 보내왔다. 당일 후원의 밤에서는 아프리카미래재단 홍보대사 송솔 나무의 연주와 함께, CTS선교창단이 특별 출연하여 감동적인 찬양을 선사한 바 있었는데, 후원의 밤에서 받은 감동으로 특별 선교헌금을 보내온 것이다. 대원 송영애 권사가 천 불, 김명숙 집사가 500불을 보내왔다.



AFF USA 설립 5년 맞아 행정 정비키로 행정 지침서 마련, 홈페이지 개편, 헌금개발 방안 마련 등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 본부는 2019년 9월 21일 창립한 미주본부 5주년을 지나면서 행정체계와 홈페이지를 정비해 미래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하기로 했다. 나삼진 사무총장은 이기회에 정비를 통해 이사회 지침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 사역 지침서, 헌금 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정비안을 마련해 11월 8일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지침서를 마련하고, 새해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 민간기구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헌금 및 사역비 마련을 다각화 할 예정이다.



니제르 임마누엘 아카데미 건축 활발히 진행중 정혜림 선교사, 선교대회에서 건축 소식 전해주

니제르 수도 Niamey에서 여자중고등학교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던 정혜림 선교사가 남자고등학교 임마누엘 아카데미를 설립, 개교를 위한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소식을 전해왔다. 정혜림 선교사는 아프리카선교대회에서 AFF USA 김홍식 이사장 및 나삼진 사무총장을 만나 그동안의 건축 진척 상황과 개교 소식을 보고하고, 그동안의 다양한 협력에 감사했다.

AFF USA 이사회는 임마누엘아카데미 건축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건축비 5만 달러를 조기 집행하기로 하여 9월 말에 송금하였다. AFF USA는 후원의 밤에 현금된 만3천불을 후원의 밤 개최 후 바로 송금한 바 있다.



DR콩고 단기사역자 고우리,브라이언 박 씨 선교 보고

석소정 이사와 김 이사의 지원으로 아프리카미래재단에서 DR콩고의 단기사역자로 파송하여 7월 한달 동안 피그미족을 대상으로 사역하였던 고우리 씨와 브라이언 박씨가 사역보고서를 보내왔다. 이들은 DR콩고에 단기사역자로 파송되어 봉사하였는데, 최관신 선교사는 고우리씨는 간호대학과 조산병원에 특강과 진료 지원을 하였고, 브라이언 박 씨는 사진 촬영 등 영상을 활용하여 봉사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선교사들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보상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사무총장)

아프리카미래재단 창립 17주년 기념 아프리카선교대회를 열면서 아프리카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2020년 개최를 계획하였지만, COVID-19 팬데믹으로 이번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는 재단을 창립하고 지난 16년 동안 지휘해 온 박상은 대표가 소천한 후 새로운 사역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 여러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프리카 선교 역사가 길어지면서 참석한 선교사들은 선교지 20년이 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선교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온 지 오래되면서 그들을 처음 파송한 후원교회는 담임목사가 바뀌면서 후원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였던 목회자가 은퇴하고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 새로운 선교 정책으로 오랫동안 지원했던 선교사의 선교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선교사들 에게 매우 실제적인 아픔이었습니다.

또, 선교사들의 외로움도 적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주로 팀이 아니라 주로 혼자 사역하다보니 홀로됨을 느끼고 그것이 심리적인 안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다면 다행인데 선교사가 많지 않는 아프리카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 전도, 개척 사역, 의료 등의 은사와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므로, 선교도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 가까이에 유명 관광지가 있어야 단기선교라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가 단기선교를 실시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만, 한국 교회의 단기선교는 미국 교회의 단기선교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선교를 간 기회에 그 지역도 둘러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볼만한 것이 없는 선교지에는 단기선교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말라위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선교는 마치 전쟁과 같아서 모든 전선이 함께 힘을 합쳐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소명으로 선교사가 되고, 후원교회의 유무와 관계없이, 혼자 외로이 선교를 위해 고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선교사로 받아들이고, 후원 교회의 관심과 격려 가운데 사역할 수 있다면 그들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런 선교사들의 아픔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여 현지의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자신의 미래와 선교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의 성취를 이루어, 미국의 대학에 지원할 때 입시사정관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충성하는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한 선교지를 선택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선교지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선택하여 선교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언어훈련과 사역의 연계성을 생각할 때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선교사가 한 번 선택한 선교지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과 같이, 교회도 한번 시작한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돕고, 협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은퇴 후라도 우리 선교사로 알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선교사는 안정감을 가지고 선교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우리 선교사는 영원한 우리 선교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50)

714-732-1484 (미국) +82) 31-342-9182 (한국)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Zelle를 보내실 때

- 이메일 : africaffusa@gmail.com

- Africa Future Foundation

☐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 송금하실 때 (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선한 청지기들 2024. 7. 1 - 9. 30 / 재정 보고

헌금자 명단

김명숙 김은식 김인용 김혜미 김홍식/김정미 나삼진 남일우 남정희 박대호 박광원 백형순 석소정/김진영 송은석/이원희
송영 송영애 송채원 신정수 오윤희 이경호 이승숙 이홍철장국현 정진철 최형득 태승남 한창훈 황길남/황로미 허지국/허영하
Andrew/Grace Bae, Tae Bahn, Joy kim, Eun S. Kim, Ki Han, Dae S. Lee, Ester Lee, Michelle Lim, Woo/Min Sun Lim,
Simon Paek, Michael Yang, Fidelity Charitable, First Morningstar Foundation, Livingstone Home Health,
Oh Family Foundation, Park Family Foundation, Priority Hospice, Schwab Charitable, Young's Management(Myung, Don)
새벽이슬교회, 예수소망교회, 오렌지카운티샬롬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아틀란타 지부 : 신약국(신사라), 유우영, 장유미, SDS Green(박형울), Hope Family Medicine(이경호), JJ물리치료(정정훈),
Exalting Christ Church of Atlanta

*혹시 이름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AFF 사무총장 (714-732-1484)에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결산

수입부

7월	35,853
8월	38,072.75
9월	58,150
합계	132,075.75

수입부 아틀란타 지부

7월	4,600
8월	18,700
9월	6,600
합계	29,000

지출부

*비전트립 경비 지출에 따른 수입금은 헌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선교사 후원비	20,000	행정비/사무비	91.31
지정헌금/장학금	14,080	우편료	302.96
한국본부	16,200	회보 출판비/인쇄비	3,297.77
니제르 건축비	63,862	급여	2,741.50
콩고 단기선교 사역비	8,000	세금	562
비전트립/오렌지팀	45,173.29	송금수수료	270
세미나 준비	382.71	CPA	1,100
한국 송금	22,632.62	소계	8,365.54
소계	190,330.62	합계	198,696.16

지출부 아틀란타 지부

부냐끼리병원 운영비(3개월)	7,080
한국 AFF 송금	15,000
부냐끼리병원 장비 지원	3,500
송금수수료	250
합계	25,830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

